



뛰어난 음악적 유산을 기념하는

THE SOUND MAKER™

예거 르쿨트르, 헤리티지 컬렉션을

대표하는 타임피스 출시

예거 르쿨트르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차임 시계는 지난 150 년 동안 그랑 메종의 컴플리케이션 위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는 1870 년에 첫 번째 미닛 리피터를 제작한 후 200 개 이상의 차임 시계 칼리버를 개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알람 칼리버부터 극도로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구현되는 그랑 소네리와 웨스트민스터 차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차임 시계 메커니즘을 마스터했습니다. 정확한 시간 측정과 음질을 모두 향상하기 위한 매뉴팩처의 끊임없는 노력은 다수의 특허와 수많은 혁신을 가져왔으며, 20 세기 중반까지 스위스 워치메이킹에서 가장 저명한 모델들에 장착되는 차임 무브먼트를 제공했습니다.

뮤직 박스에서 포켓 위치에 이르기까지

앙트완 르쿨트르가 시계 제작에 눈을 돌리기 전, 그와 그의 아버지는 기계식 뮤직 박스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키보드’를 발명했습니다. 하나의 금속 조각에서 잘라내어 빗(프랑스어로 *peigne*) 모양을 지닌 키보드는 음질을 개선하고 악기의 디튜닝을 방지했습니다. 이 장치를 변형한 버전들은 거의 모든 뮤직 박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헤리티지 컬렉션은 섬세하게 장식된 별갑 박스에 르쿨트르 ‘펄(Peigne)’ 메커니즘을 장착한 1820 년대 초기 모델들을 보여줍니다.

르쿨트르 아틀리에는 1833 년에 설립된 후 창의성과 품질 분야 모두에서 빠르게 명성을 얻었으며, 1860 년대에는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차임 메커니즘을 통합시킨 복잡한 시계 무브먼트로 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미닛 리피터를 개발한 지 10 년이 지난 1880 년경, 르쿨트르 매뉴팩처는 2 개의 해머와 공을 장착했던 기본 구성에서 벗어나, **3 개의 해머로 구성된 미닛 리피터인** 칼리버 19/20 RMS 를 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해머 덕분에 3개 음으로 구성된 독특한 멜로디로 15분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랑 메종이 전문성을 넓혀감에 따라, 워치메이커들은 오토마타를 차임 시계에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사랑받은 것은 관절형 팔다리를 가진 인간 형상으로 시계 다이얼에 장식된 **자크마르(jacquemarts)**였습니다. 시계 무브먼트로 구동되며 타종으로 시간을 알리는 오토마타들은 차임 기능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었습니다. 1890 년대 초에 르쿨트르가 선보인 **자크마르 포켓 위치**의 정교한 다이얼은 에나멜과 인그레이빙으로 장식된 로맨틱한 장면의 자크마르 한 쌍이 특징입니다.

1895 년, 예거 르쿨트르는 사일런트 레귤레이터라고도 알려진 **무음 타종 거버너(silent strike governor)**를 발명하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레귤레이터의 특징이었던 주변 잡음을 제거하여



더욱 또렷한 차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발명품의 다양한 버전은 이후 차임 시계의 산업 표준이 되었습니다. 헤리티지 컬렉션 중에는 모노 푸셔 크로노그래프와 미닛 리피터를 결합하여 칼리버 19 IMCCV로 구동되는 **1914 포켓 워치**가 있습니다.

20 세기 초, 르쿨트르는 트리플 컴플리케이션 워치 무브먼트를 마스터한 몇 안 되는 매뉴팩처 중 하나였습니다. 1910 **미닛 리피터 트리플 컴플리케이션**의 경우, 르쿨트르 칼리버 19/20IMCSQ가 장착되어, 클래식 헌터 스타일 케이스 안에 미닛 리피터와 크로노그래프, 퍼페추얼 캘린더를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에 걸맞은 미적 감각을 선보이기 위해, 복합적인 시계일수록 수공예 장식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1928 레핀 스타일의 포켓 워치**에는 미닛 리피터와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를 통합한 르쿨트르 칼리버 17JSMCCRVQ가 장착되었으며, 스텔레톤 구조와 에나멜링, 인그레이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레핀(Lépine)은 프랑스 워치메이커 장-앙투안 레핀(Jean-Antoine Lépine)이 더욱 얇은 칼리버를 제작하며 개발한 시계 무브먼트 구조 양식을 가리킵니다.

메모박스

실용적인 기능을 탑재한 시계의 수요가 높아졌던 20 세기 중반, 예거 르쿨트르는 수준 높은 차임 메커니즘 노하우를 통해 알람 시계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차임 칼리버에서는 해머의 타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미닛 리피터의 종소리와 같은 차임이 아닌 음높이가 같은 소리를 구현했습니다. 메모박스(‘기억의 소리’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차용된 이름)는 70년 동안 알람 시계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1950년, 그랑 메종은 **첫 번째 메모박스 워치**에 칼리버 489를 도입했습니다. 절제된 클래식 디자인이 돋보이는 시계로, 다이얼에는 움직이는 중앙 디스크에 장착된 삼각형 포인터가 알람 시간을 표시하며, 와인딩 및 시간 설정용 크라운과 알람 설정용 크라운은 케이스 측면에 가깝게 장착되었습니다.

1946년에 최초의 오토매틱 손목시계 무브먼트를 개발한 매뉴팩처는 10년 후, **최초의 오토매틱 알람 무브먼트인 칼리버 815**를 출시했습니다. 무브먼트 중앙에 고정된 로터의 회전은 2개의 범퍼로 제한되었고, 충격을 흡수하는 작은 스프링이 탑재되었습니다.

1958년, 예거 르쿨트르는 2개의 새로운 버전을 통해 메모박스 칼리버 814를 선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사업가들을 염두에 둔 **메모박스 인터내셔널**은 다이얼의 내부 디스크에 24시간 월드 타임 디스플레이를 통합했습니다. **메모박스 파킹**은 주차 만료 시간을 알리는 알람 기능을 탑재하여 운전자들이 선불한 시간을 초과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59년 레저 다이빙의 급속한 성장과 그에 상응하는 특수 제작 시계 수요에 대응하여, 예거 르쿨트르는 세계 최초의 알람 다이빙 시계인 **메모박스 딥 씨(Cal. 815)**를 출시했습니다. 수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보음은 음향 신호와 시계의 진동을 제공하여 다이빙 경과 시간을 알려줍니다.

1963년에 출시된 후 1968년에 날짜 카운터(Cal. 825)를 추가한 **메모박스 폴라리스**는 알람 시계의 다이빙 기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회전하는 내부 베젤은 다이빙 경과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며,



3중 케이스백이 장착된 수퍼 컴프레서 케이스는 잠수 시 알람 소리를 증폭하는 동시에 200m 방수 기능을 선사합니다.

1970 년, **메모박스 스피드비트(Memovox Speedbeat)**는 예거 르쿨트르가 새롭게 선보이는 높은 진동수의 첫 번째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칼리버 916 을 도입했습니다. 밸런스 휠 진동수를 28,800vph 로 높이면서 무브먼트가 더욱 안정되고 정확해졌습니다. 새로운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은 메인스프링을 감기 위해 축을 중심으로 360 도 회전하는 로터를 선보였습니다.

칼리버 918 이 탑재된 **마스터 레베이유(Master Réveil)**는 1994 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메커니즘에 장착된 해머는 이전처럼 케이스를 직접 치지 않고 공을 타격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메모박스의 시그니처로 남아 있는 독특한 ‘스쿨 벨’ 사운드가 탄생했습니다. 마스터 레베이유는 시계제조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하우스 품질 관리 프로토콜 중 하나인 1,000 시간 테스트를 거친 최초의 메모박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차임 시계의 이 위대한 유산은 예거 르쿨트르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탁월한 전문성을 선사했습니다. 차임 시계 분야에 대한 매뉴팩처의 끊임없는 진화는 187 년의 역사를 통틀어, 그랑 메종을 이끌어준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Jaeger-LeCoultre: HOME OF FINE WATCHMAKING SINCE 1833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는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 년 이래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